2019. 1.

<2018. 12. 15 ~ 12. 20, 중국 류저우, 구이린>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 라 북 도 의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목 차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1
2 연수현황 1
3 연수내용 2
4 연수일정 3
5 연수자 명단 4

Ⅱ. 연수국가 일반현황

1 방문지도 및 이동경로 5
2 중국현황 6
3 광시좡족자치구 현황 11
3-1. 류저우(柳州) 현황 14
3-2. 구이린(桂林) 현황 15

Ⅲ. 연수기관 및 연수결과

1 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투쟁활동 진열관 16
2 류저우 기석관 23
3 동풍유주자동차유한공사 28
4 계림대우객차유한공사 40
5 기타 방문지 48

Ⅳ. 연수후기 50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전라북도 경제는 최근 군산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 세계 소비시장의 다변화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전북의 효자산업이던 자동차, 기계, 부품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음

○ 최근 정부는 5대 신산업 프로제트의 하나로 전기·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신산업 시장 조기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전북도는 민선7기 친환경 산업 전진기지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함

○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IT기업 투자 등으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2 연수현황

○ 기　　간 : 2018. 12. 15.(토) ~ 12. 20.(목) / 4박 6일

○ 연 수 국 : 중국 류저우(柳州), 구이린(桂林)

○ 연수대상 : 16명

- 의　　원(9명) : 의장,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8명
- 직　　원(7명) : 전문위원실 직원 5명, 총무담당관실 직원 1명

3 연수내용

○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은 도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 관련 산업 육성 및 협력방안 모색

- **둥펑류저우 자동차유한공사** : 중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로 상용차, 엔진, 자동차부품까지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에너지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산업에 주력
- **계림대우자동차객차유한공사** : 2002년 GM대우 출범 시 계열 분리되어 설립된 중대형 버스 전문 제조회사로, 현지 공장은 1993년 10월 설립되어 주력모델인 GDW6129HC, GDW6115K 등 연간 2,500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대한민국임시정부 전시관 방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에 나섰던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 마련

- **류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전시관** : 임시정부가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이동하던 중 1938년 10월~1939년 4월까지 류저우에 머물렀던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을 기억하기 위해, 류저우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투쟁활동 기념관'을 조성해 활용

○ 현지인을 비롯해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전통시장의 전반을 둘러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우리 전통시장이 벤치마킹할 부분을 점검하여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서가전통시장** : '서쪽거리 전통시장'과 '서양인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민족들이 만드는 공산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양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4 국외연수 일정

일자	방문지역	시 간	일 정	비고
12. 15. (토)	전주 ⇒ 인천 ⇒ 구이린	13:30 17:30 20:30 23:50	○ 도의회 집결 후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구이린 국제공항 도착 ○ 호텔 이동 및 휴식	1일차
12. 16. (일)	구이린	10:00 15:00	○ 역사 문화탐방(이강, 세외도원 등) **○ 서가전통시장 견학** - 구이린 지역 전통시장으로, 주로 소수민족들이 제작한 수공예품을 진열 판매	2일차
12. 17. (월)	구이린 ⇒ 류저우	10:00 14:00 16:00	○ 이동(구이린→류저우) **○ 임시정부 항일전시관 방문** - 1938~39년까지 류저우에 머물던 임시정부의 항일 투쟁 역사자료 전시관 ○ 역사 문화탐방(용담공원 등)	3일차
12. 18. (화)	류저우	10:30 15:00	**○ 기석관(奇石館) 방문** - 광서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의 수천점의 기암괴석을 수집·전시한 테마형 공원 **○ 유주동풍기차유한공사 방문** - 중국자동차 및 친환경(전기)자동차 생산현장 견학 및 도내 관련 산업 발전방안 모색	4일차
12. 19. (수)	류저우 ⇒ 구이린	10:00 14:00 21:30	○ 이동(류저우→구이린) **○ 대우자동차 계림법인 방문** - 중국과 국교수립 초기인 93년 설립된 자일대우상용차 중국 현지 법인 ○ 구이린 국제공항 도착 및 수속	5일차
12. 20. (목)	구이린 ⇒ 인천 ⇒ 전주	00:50 05:15 10:00	○ 구이린 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전주 도착 후 해산	6일차

5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영 문)	성 별	비 고
계			16명	남 13명 여 3명	
도의원 (9명)		위원장	강 용 구 (KANG YONG GU)	남	
		부위원장	김 철 수 (KIM CHUL SOO)	〃	
		위 원	김 만 기 (KIM MAN GI)	〃	
		〃	김 정 수 (KIM JUNG SOO)	〃	
		〃	나 기 학 (NA KI HAK)	〃	
		〃	오 평 근 (OH PYUNG GEUN)	〃	
		〃	최 영 심 (CHOI YOUNG SIM)	여	
		〃	황 영 석 (HOWANG YOUNG SUK)	남	
		도의장	송 성 환 (SONG SUNG HWAN)	〃	
전문위원실 (6명)	수행보좌 (4명)	전문위원	정 재 철 (CHUNG JAE CHUL)	남	
		직 원	이 승 현 (LEE SEUNG HYUN)	〃	
		직 원	양 봉 수 (YANG BONG SOO)	〃	
		직 원	유 지 연 (YOU JI YEON)	여	
	정책연구3팀 (2명)	팀원	형 영 주 (HYUNG YOUNG JU)	〃	
		팀원	마 정 숙 (MA JEONG SUK)	여	
총무담당관 (1명)	수행보좌	직원	조 현 철 (CHO HYUN CHUL))	남	

II 연수국 일반현황

1 방문국가 지도 및 이동경로

○ 한국 → 구이린 → 류저우 → 구이린 → 한국





2 중 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 국가개황



국 기(오성홍기)

○ 명 칭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 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 수 도 : 베이징(北京)

○ 면 적 : 960만km^2 (한반도의 44배)

○ 정치현황 :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 국가주석 : 시진핑(習近平)

○ 인 구 : 13억 8,271만명(2016년 기준)

○ 행정구역 : 4개 직할시, 23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 주요도시 : 베이징(2,173만명), 텐진(1,562만명), 충칭(3,048만명), 상하이(2,420만명)

○ 민 족 : 한족(漢族, 92%) 및 55개 소수민족(8%)

○ 언 어 : 한어(漢語, Chinese)

○ 종 교 :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 화 폐 : 위안(￥ · Yuan)

○ 경제현황

- GDP(2016년) : 74조 4,127억 위안
- 외환보유액 : 3조 105억 달러
- 산업구조 : 3차(51.6%) > 2차(39.8%) > 1차(8.6%) 산업 順
- 주요수출품 : 자동화데이터 설비 및 부품, 의류, 휴대폰 등
- 주요수입품 : 집적회로(IC), 원유, 농산품, 철광석, LCD 등

▣ 역사

○ 황하 강에서 시작된 중국 문명은 은(殷) 나라가 최초의 왕조였으며 주(周)가 뒤를 이었으며 이후 500여년간 춘추전국시대가 존속. BC 221년 진(秦)이 중국을 통일한 이래 한(漢), 수(隋), 당(唐), 송(宋), 원(元), 명(明), 청(淸)의 수많은 왕조가 흥망을 반복

○ 1911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탄생했으며 1946~49년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을 통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는 국가 지도자의 지도 이론이나 정책 등에 따라 마오쩌둥 시대, 화궈펑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대, 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등과 같이 분류

○ 특히,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의 현대화를 진행하여 중국 경제가 급 발전

▣ 정치

○ 3권 분립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 공산당에 의한 사실상의 일당독재체제.

○ 서구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2개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헌법 개정 및 감독, 기본법률 제・개정, 국가주석 및 부주석 선출하며, 국가 경제, 사회발전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 비준

○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 5년으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었으나, 2018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 임기를 폐지하는 개헌을 하여 현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 총리가 수장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집행기관으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 공포하며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 97년 반환받은 홍콩과 99년 반환받은 마카오는 입법부 일부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등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일국양제라 불리나,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음

▣ 경제

○ 중국은 70년대 후반 이래 소비에트식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식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정부 주도로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함.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면서부터 국내경제를 세계자유무역 체제에 편입시키며 무역대국으로 부상

○ 농업 분야

- 중국 전체면적의 10%만 경작이 가능하나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지역에는 관개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 개혁·개방 이전까지 약 80%의 인구가 농촌에 살며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공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도시에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자 2000년 이후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이농인구는 6,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세계 주요 쌀 생산국의 하나로 가장 수확량이 많은 작물이며, 다음으로 밀, 고구마,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 콩 등을 주로 재배.

- 해양과 민물에서 오랜 어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어획량의 65%는 태평양에서, 나머지는 내륙 하천에서 잡고 있음

- 매년 삼림 벌채량의 1/3가량이 산업용으로 사용되지만 나머지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목재 일부는 수입. 무차별적 삼림 파괴를 우려하여 재조림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삼림자원은 빈약한 실정

○ **공업 분야**

-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측면에서 공업은 다른 모든 분야를 능가하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금속공업과 기계설비 부문은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 주요 제조업 분야로는 비료·농약·섬유·정유·선철·식물성기름·원당·플라스틱·전자제품 등임

- 또한, 정부 당국이 화학산업에 주력하여 화학비료·플라스틱류·합성섬유의 생산이 크게 신장되었는데, 화학산업이 성장한 결과 중국은 질소비료의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

- 2000년대 들어서는 컴퓨터·정보통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산업구조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

- 공업시설의 상당부분은 동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하이 한 곳에서만 중국 전체 공업생산량의 10%가 생산. 개발의 지역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발하려는 대단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38선 돌파 후 북진통일을 하려는 순간 중국공산군 60만 대군이 참전하며 인해전술 등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꾸며 한국군과 유엔군에 막대한 인명, 물자 피해를 남기며 전쟁 후 국교가 정식으로 단절

○ 덩샤오핑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개방을 추진하면서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국교를 수교하며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최근 들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과거사 부정, 영유권 억지 주장으로 상호 협력하는 단계로 발전

○ 다만,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단행 후 한반도 사드(THAAD) 배치가 가속화되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3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 지역개황

○ 면　　적 : 236,700km^2

○ 인　　구 : 48,220,000명(2002년)

○ 행정구분 : 14개 지급시, 56개 현, 34개 시할구, 12개 자치현, 7개 현급시

○ 당 서 기 : 루신서(鹿心社)

○ 성도(省都) : 난닝[南寧] 시

○ 주　　민 : 한족, 좡족, 동족, 먀오족, 야오족, 후이족, 이족, 수이족, 징족 등

○ 지리 : 중화인민공화국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은 윈난성, 북쪽은 구이저우성과 후난성, 동쪽은 광둥성과 접하며, 남쪽은 통킹만에 접함. 연평균 기온은 17~23 °C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250~1750mm

▣ 역사

○ BC 214년 진(秦)나라가 화남 지역을 공격할 때 중국의 일부가 되었으며, 광서라는 지명은 송나라 때 광남서로(廣南西路)라고 부르던 행정구역에서 기원. 많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1958년 자치구로 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성(省)이었음

○ 중화민국 설립된 후 가장 강력한 군벌 중 하나인 류룽팅이 이끄는 구광서파와 리쭝런과 바이충시가 이끄는 신광서파의 기반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일본군의 지배를 받기도 했음

○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 이후에도 중국공산당이 차지하지 못하다가 두 달 후인 1949년 12월 비로소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되었으며, 1958년 당시 주석이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좡족자치구로 추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경제

○ 광시좡족자치구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며 아직까지 도시화 진척이 느린 지역이나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CA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음

○ 2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전체와 비교해 볼 때 1차, 2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3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임

광시 좡족자치구 산업구조 변화 추이



<자료출처 : 2015 광시통계연감>

○ 제조업

- 중국 다른 성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 2004년 1,000억 위안을 상회한 이후 2007년 2,000억 위안, 2010년 3,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6,338억 2,800만 위안을 달성하여 중국 제조업 전체의 2.8%를 차지

- 특히, 광시 광업총생산에서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11.9%, 농식품가공업 10.8%, 자동차제조업 10.4%로 3개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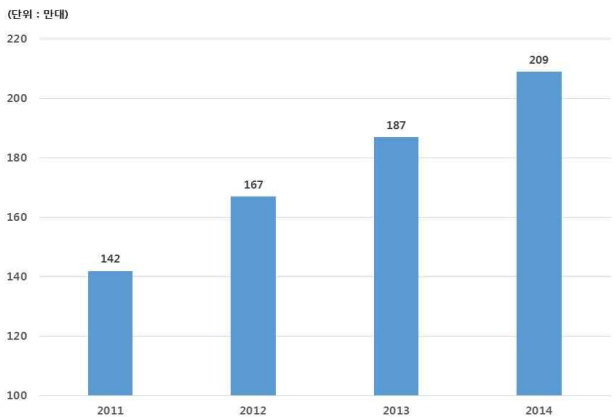
○ 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은 광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기간산업으로 중국의 이치, 상하이, 둥펑 등 3대 자동차 기업뿐 아니라, 미국GM, 한국 대우, 프랑스 르노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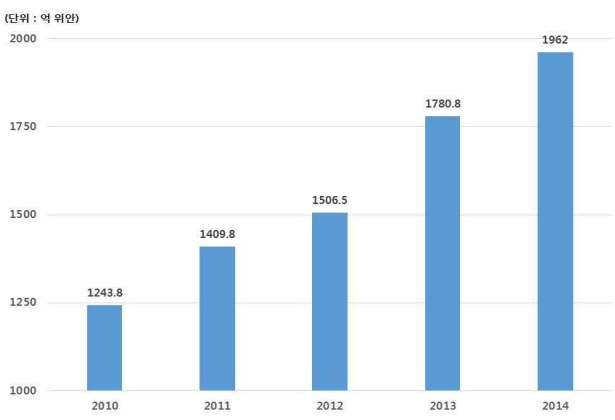
- 12.5 규획 이후 광시의 자동차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총생산량이 2010년 137만대에서 2014년 209만대로 50% 이상 증가하였고, 연평균 11.3% 성장률을 기록. 특히 광시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중점 육성하기로 정책방향을 설정

- 류저우 시, 구이린 시, 위란 시, 난닝 시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류저우 시에는 완성차 업체 3곳이 있으며 부품협력업체는 주로 엔진, 기어박스 조립, 차축 등을 생산하며 부품의 지역 자체 조달율이 40~50%에 육박할 정도로 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형성

<광시 자동차산업 총생산량(2011~2014)>



<광시 자동차산업 매출액(2010~2014)>



<자료출처 : 2015 광시통계연감>

③-1. 류저우(柳州)

▣ 지역개황

○ 면　　적 : 18,677km²

○ 인　　구 : 3,620,000명(2007년)

○ 행정구역 : 5개 시할구, 3개 현, 2개 자치현

○ 청사소재지 : 류베이 구

○ 지　　리 : 광시좡족자치구 중북부에 위치하며 U자형으로 3개의 강(심강, 용강, 쇄강)이 네 곳에서 만나며, 도시가 주전자 모양을 하고 있어 호성 또는 용성이라 불림

▣ 역사

○ BC 111년에 세워져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742년 룽청으로 불리다 1736년 류저우로 개칭

○ 당나라의 정치인이자 시인인 유종원(773~819)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며, 그를 기념하는 공원이 있음

▣ 경제

○ 광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공업 중심지이며 자동차, 야금, 기계산업 등이 발전. 류저우 공업 총생산액이 광시좡족자치구 전체 생산액의 20.3%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GDP는 2,480억 위안이며, 1인당 GDP는 58,869위안임. 수출액은 8억 달러, 수입액은 14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음

③-2. 구이린(桂林)

▣ 지역개황

○ 면　　적 : 27,797km²

○ 인　　구 : 5,050,000명(2007년)

○ 행정구역 : 6개 시할구, 1개 현급시, 8개의 현, 2개 자치현

○ 청사소재지 : 린구이 구

○ 지　　리 : 광시좡족자치구 북동부에 위치하며 습윤한 계절성 기후로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나, 일조량이 풍부하고 사계절이 뚜렷함. 카르스트 지형으로 바위의 병풍이 탑처럼 둘러싸여 있어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세계적인 관광지임

▣ 역사

○ 월나라 땅이었으나, 진나라 시황제가 정복하여 계림군에 편입시켰음. 111년 시안현이 설치되고 후난성에 가까워 형주 임릉군에 복속시켰음

○ 명 홍무제 시대 계림부를 설치하여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중화민국 초기인 1913년 성도가 난닝으로 이전했다가 1936년 전쟁으로 다시 성도가 되었으나 1950년 난닝으로 성도를 이전함

▣ 경제

○ 2003년 1인당 GDP는 15,775위안이며, 지역 산업으로 의약제품과 타이어, 기계류, 비료, 비단, 향수, 포도주, 차, 계피와 중국 전통 의약재를 생산

II 연수기관 및 연수결과

1 유주 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투쟁활동 진열관

▣ 방문목적

○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에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이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록·전시하고 있는 류저우 시정부 관계자와 간담

▣ 방문개요

○ 일　　시 : 12. 17.(월) 14:00~

○ 안 내 자 : 해설사　爲 云 丹 (WEI YUN DAN, 웨이윤단)

○ 주　　소 : 广西壯族自治區　柳州市 魚峰區 柳石路 1號
(1 LiuShi Lu, Yufeng Qu, Liuzhou Shi, Guangxi)

○ 연 락 처 : 0772-280-1244(류저우시 문물사무실)
0772-383-3757(진열관)

○ 주요내용

- 항일투쟁활동 진열관 견학 및 류저우 항일투쟁 역사에 대한 설명 청취

- 항일투쟁활동 진열관 관계자와 간담 및 감사 선물 전달

▣ 방문기관 주요 내용

【항일투쟁활동 진열관 주요현황】

○ 낙군사(樂群社)로 불리는 류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투쟁 진열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류저우에서 활동할 당시 임

시정부 요인들이 묵었던 장소로 추정

○ 류저우 시는 2001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투쟁활동 기념관’ 건립을 계획하고 2004년 보수 지원 등을 통해 낙군사 자리에 개관한 뒤 몇 차례의 개보수를 거쳤으며, 현재 해당 건물은 2006년 중국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위로 지정

○ 2004년 11월 개관 당시 독립기념관과 류저우 시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전시하였음. 특히 류저우 시에서 결성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관련 사진과 한국국민당 관련 자료, 이동시기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음

○ 진열관 1층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 모형과 각종 서적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는 임시정부의 수립, 류저우 시기 임시정부 활동, 충칭 시기 임시정부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음

○ 위원회 방문 당시 개보수를 마치고 아직 개관을 앞두고 있었으나, 임시 개관을 통해 연수단이 임시정부의 항일투쟁활동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요 활동】

○ 1919년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전세계에 알린 3·1 독립선언에 기초해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에 한성정부 수립. 각 지역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통합을 추진해 1919년 9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

○ 임시정부 초기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해 국내 항일투쟁세력과 연대하였으며 서간도의 서로군정서와 북간도의 북로군정

서를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조직으로 편제해 적극적인 항일투쟁에 나섬

○ 일제의 탄압과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1920년대 들어 활동이 침체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고자 의열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여 한인애국단이 조직되고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항일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상하이에서 머물던 임시정부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 일본군을 피해 항정우를 비롯한 중국 내 6개 도시를 유랑하다 일제 말기인 1940년 충칭으로 이전 후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됨

【대한민국임시정부 류저우 주요 활동】

○ 임시정부 주요 이동 경로



- 1919. 4. ~ 1932. 5. 상하이
- 1932. 5. ~ 1932. 10. 항저우
- 1932. 10. ~ 1932. 11. 전장
- 1932. 11. ~ 1937. 11. 난징
- 1937. 12. ~ 1938. 7. 창사
- 1938. 7. ~ 1938. 11. 광저우
- 1938. 11. ~ 1939. 5. 류저우
- 1939. 5. ~ 1940. 9. 치장
- 1940. 9. ~ 1945. 11. 충칭

○ 광저우에 머물던 임시정부는 일본군이 공격해오자 1938년 10월 류저우로 이동. 당시 광동성 주석 우톄청(吳鐵城)은 류저우로 가는 교통편을 직접 마련하고 류저우에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주선해 주었음.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임시정부 사무실도 없이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일본군의 폭격을 피하는 피난생활이 이어지며 매우 힘들었던 시기를 보냄

○ 임시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독립선언 20주년 기념 선언' 등 각종 선언서를 발표하며 독립의 결의를 다짐. 특히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를 결성해 중국인들을 상대로 선전물 배포, 횃불시위, 가두행진, 항일 연극공연 등의 활동을 펼침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원들은 유후공원 음악정 앞에서 류저우의 각 기관 단체 대표들과 이별 기념사진을 찍었다. 71명의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_1939. 4. 4

○ 특히, 류저우 시 항일단체와 기관의 협조로 진행된 연극공연의 수익금을 일본과의 전투에서 부상한 중국 항일 장병들에게 전달하여 류저우 인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류저우의 임시정부 항일활동 관련 유적지】



○ 유후공원(柳侯公園) :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는 유후공원에 모여 활동 방향과 사업 등을 논의하고 위수사령부 옆의 공원에서 사무를 보기도 했음.

○ 사유헌(思柳軒) : 유후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9년 4월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가 류저우의 청년단체와 그 동안의 사업을 정리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장소

○ 용성중학교 : 1939년 3월 1일 용성중학교 강당에서 3·1운동 2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기념선언문 발표

○ 라오레이 공관 : 라오레이의 부인 후휘의 도움으로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 집무실로 활용하며 사무를 보았음

○ 기타 : 공공체육관, 유후사, 옛 곡원극장 터, 신세계 극장, 구망극장, 감향정 등

▣ 시 사 점

○ 류저우는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상하이, 항저우, 충칭 등에 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며, 임시정부가 머물며 활동했던 기간 역시 6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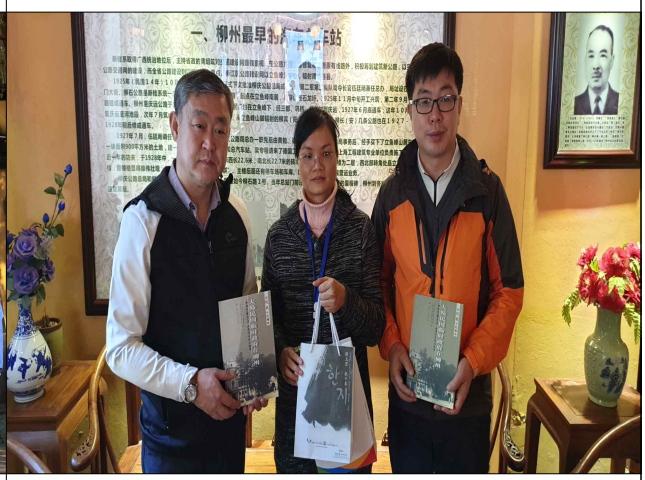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항일투쟁 관련 기념 진열관을 류저우 시에서 직접 계획하고, 한국의 독립기념관 등과 협의해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음

○ 비록 짧은 시간이고 당시 임시정부의 류저우에서의 활동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들이 류저우 시민들과 함께 항일투쟁에 나섰던 것이 아직도 이들에게는 소중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됨

○ 특히, 한국인들에게 류저우는 인근 관광도시인 구이린(桂林)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임에도, 진열관(전시관)에 관련 전시물을 비롯해 브로슈어, 책자 등을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로 만들어 놓아, 이곳을 찾은 한국인들에게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

○ 도내에도 항일 운동에 평생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어, 이분들의 조국 독립을 위한 애국정신 본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방문기관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항일투쟁활동 진열관</td><td>항일투쟁활동 진열관</td></tr>
<tr><td></td><td></td></tr>
<tr><td>항일투쟁활동 해설 청취</td><td>항일투쟁 활동 자료</td></tr>
<tr><td></td><td></td></tr>
<tr><td>기념촬영</td><td>기념품 전달</td></tr>
</table>

2 류저우 기석관(柳州 奇石馆)

▣ 방문목적

○ 공업도시로만 알려진 류저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기암괴석을 수집해 전시한 테마파크로 익산에 조성된 석제품 전시홍보관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 수집

▣ 방문개요

○ 일　　시 : 12. 18.(화) 오전 10:30

○ 안 내 자 : 해설사 楊 純 (YANG CHUN, 양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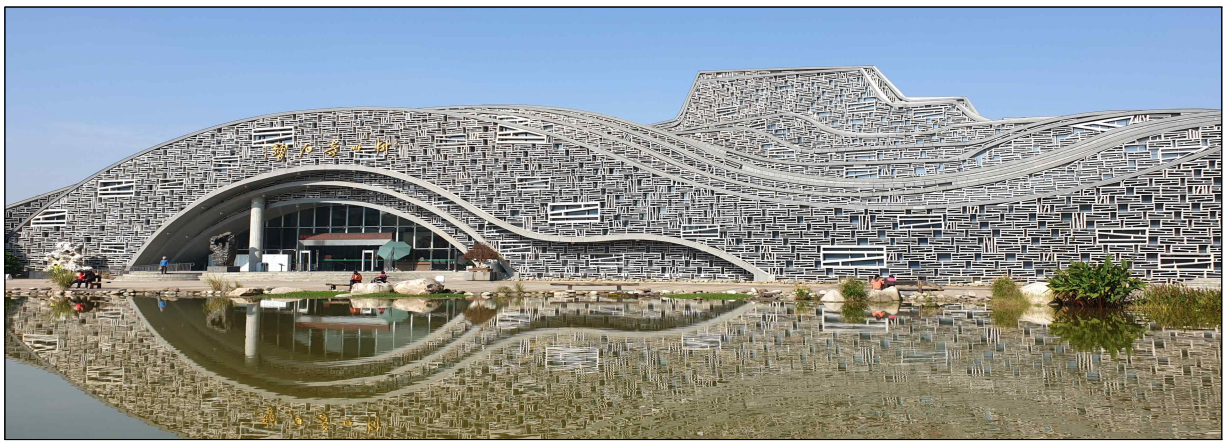
○ 주　　소 : 广西壯族自治區 柳州市 城中區 學院路
(Xueyuan Rd, Chengzhong Qu, Liuzhou Shi, Guangxi)

○ 홈페이지 : http://www.lzssw.com

○ 연 락 처 : 0772-382-7635

○ 주요내용

- 중국 석재산업 관련 자료 수집
- 전시관 현황 및 자료 전시내역 파악



▣ 방문기관 주요 내용

【 류저우 기암괴석원 】



○ 기석문화를 중심으로 생태, 경관, 레저 등 3대 기능을 모아놓은 류저우 기암괴석원(마록산 공원)은 연면적 91.51ha에 달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기임괴석 테마파크이며 국가 A급 관광지임

○ 2009년 11월 조성된 기암괴석원에는 호텔과, 정원, 문화거리, 광장, 휴게시설 등 공원시설처럼 되어 있어 류저우 시민들은 물론이고 류저우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음

○ 기암괴석원의 핵심은 기석관으로 건축면적은 12392.8㎡이며 유선형을 띤 기석조형을 본 뜬 3층 규모의 건축물 내부에는 수 천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 류저우 기석관 】

○ 1층 전시실에는 도안석(都安石), 내빈수충석(來賓水沖石), 삼강황랍석(三江黃蠟石), 삼강석(三江石), 대화채옥석(大化彩玉石) 등 류저우 지역에서 수집한 기석을 전시하고 있음. 특히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띠고 있는 기석은 크기도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음.

○ 2층 전시실에는 중국 전역을 수집한 기석 작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다양한 기석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특히 이곳에서는 기석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 3층 전시실에서는 돌을 활용한 작품뿐만 아니라 수정 등 보석류를 활용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 시 사 점

○ 기암괴석원은 주변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류저우와 광서 지역의 다양한 희귀 기석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진열관(기석관)과 함께 숙박시설(호텔), 문화거리, 광장, 휴게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놓은 테마파크 형태의 관광지임

○ 전라북도에서도 익산 화강암을 활용한 석제품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홍보관이 지난해 문을 열었지만,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아직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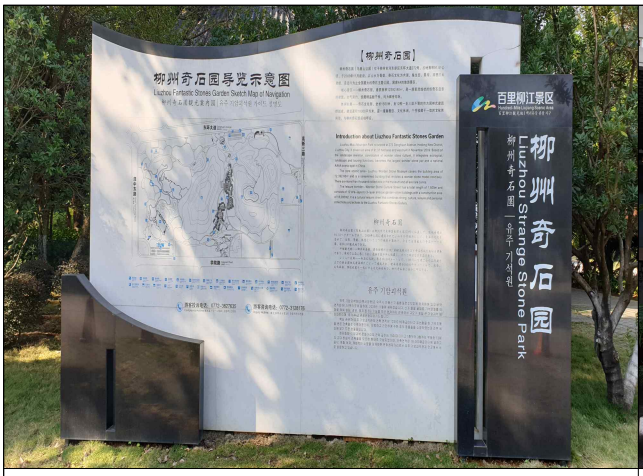
○ 익산의 전시홍보관은 화강암의 특성과 석재산업 등을 소개하는 홍보관과 지역 업체의 판매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공간을 활용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며 놓았음.

○ 류저우 기석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암괴석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만들어 전시해 놓았다는 것임. 특이한 모양의 돌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아놓고 그것을 관람객들이 직접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팔음석(八音石)을 활용한 실로폰으로 관람객이 직접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돌로 만든 음식, 만리장성 모양의 돌과 주변 풍경을 연계한 작품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음

○ 침체 일로의 석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석제품 전시 홍보관을 누구나 찾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석재를 활용한 전시품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을 통해 상상하며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방문기관 사진

<table>
<tr><td>
</td><td></td></tr>
<tr><td>류저우 기석원</td><td>기석원 1층 전시실</td></tr>
<tr><td></td><td></td></tr>
<tr><td>기석관 해설 청취</td><td>기석관 해설 청취 및 체험</td></tr>
<tr><td></td><td></td></tr>
<tr><td>기념촬영</td><td>기념촬영</td></tr>
</table>

3 동풍유주기차유한공사(东风柳州氣車有限公司)

▣ 방문목적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생산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은 도내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2. 18.(화) 15:00

○ 면 담 자 : 총경리 程 源 (CHENG YUAN, 청위안)
부지배인 鳳 杰 (FENG JIE, 펑지에)
해외총괄이사 李 笑 楠(LI XIAO NAN, 리샤오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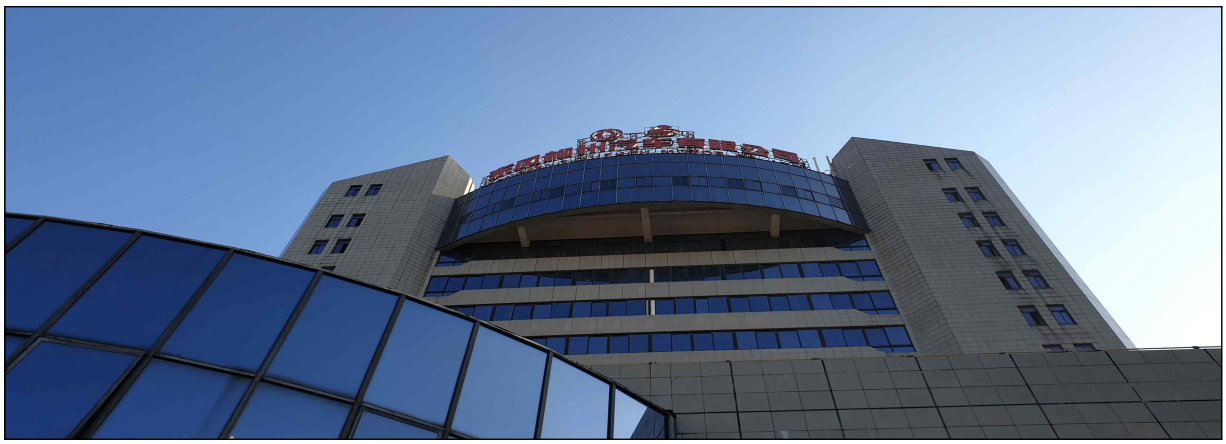
○ 주　　소 : 广西壯族自治區 柳州市 魚峰區 屏山大道 286号
(286 Pingshan Ave, Yufeng Qu, Liuzhou Shi, Guangxi)

○ 홈페이지 : http://www.dlflzm.com.cn

○ 연 락 처 : 0772-383-6524

○ 주요내용

- 중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청취 및 전기자동차 현황 파악
- 동풍유주자동차 회사와 도내 자동차부품 업체의 협력방안 모색



▣ 방문기관 주요 내용

【 동풍자동차 주요 현황 】



○ 회 사 명 : 东风汽车集團公司
(Dongfeng Motor Corporation)

○ 설립연도 : 1969년

○ 본　　사 : 후베이성 우한시

○ 회사유형 : 국영기업

○ 종업원수 : 12만 4천명

○ 경영범위 : 완성차, 부품, 무역 등

○ 주요 연혁

- 1969년 둥펑자동차 전신인 제2자동차공장 설립
- 1990년 프랑스 시트로앵 합자 세단 프로젝트
- 1992년 둥펑자동차로 사명 변경, 일본 혼다와 부품생산 합작
- 1999년 둥펑자동차 상하이 상장
- 2001년 둥펑자동차유한공사 설립
- 2003년 둥펑자동차가 둥펑자동차유한공사 지분 매입을 통해 둥펑자동차그룹으로 사명 변경
- 2003년 일본 닛산과 합작
- 2005년 둥펑자동차그룹 홍콩 상장
- 2007년 둥펑자동차 승용차 사업부 설립, 자체 브랜드 개발
- 2009년 등퐁승용차 자체브랜드인 둥펑펑션(东风风神) 생산

○ 중국의 국유기업으로 승용차를 비롯한 상용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제조업체. 상하이자동차, 디이자동차, 창안자동차와 함께 중국 4대 자동차 그룹 중 하나로 평가

< 중국자동차 브랜드별 순위(2011년 기준) >

(단위: 만대)

순위	브랜드명	판매량	순위	브랜드명	판매량
1	상하이자동차	397	6	광치자동차	74
2	**동풍자동차**	**306**	7	치루에이자동차	64
3	디이자동차	260	8	화첸자동차	57
4	창안자동차	201	9	짱화이자동차	49
5	북경현대	153	10	창청자동차	48

자료출처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1968년 마오쩌둥에 의해 후베이성 스옌시에 '제2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가 1992년 둥펑(东风)으로 회사명을 변경

○ 둥펑자동차는 최근 1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국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프랑스 PSA그룹(푸조, 시트로엥), 일본의 닛산, 도요타, 한국 기아자동차 및 장쑤성 위에다 그룹 등과 합자, 합작, 전략적 제휴를 체결

○ 합자회사

- 둥펑위에다기아 : 2003년 둥펑과 기아자동차 합자 회사
- 둥펑 닛산 : 둥펑 산하 브랜드인 베누시아 생산
- 둥펑 푸조-시트로엥
- 둥펑 율론 : 대만의 율론모터스와 합자 회사

- 둥펑 르노
- 둥펑 혼다 : 시모(CIIMO) 브랜드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체
- 동포 트럭 : 볼보, UD트럭, 둥펑 간 합자회사
- 다나 : 미국 부품회사인 다나홀딩스와 합자회사

○ 계열회사

- 둥펑 베누시아 : 과거 둥펑 닛산의 산하 브랜드였다가 2017년 둥펑 브랜드로 편입된 승객용 차량 제조 회사
- 둥펑 펭두 : 2013년 설립한 회사로 닛산의 CUV 차량 생산
- 둥펑 펜센 : 2009년 설립된 자동차 업체
- 둥펑 류저우 : 류저우에 본사가 있는 계열사
- 둥펑 스키오 : 전기차 생산업체로 현재는 하이브리드형 차량 생산

【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현황[1] 】

□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판매 현황

○ 2017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은 9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5위는 미국, 일본, 인도, 독일 순임

< 세계 국가별 자동차 판매량 순위 >

단위: (만대, %)

순위	국가	판매량	증가율	순위	국가	판매량	증가율
1	**중국**	**2,887**	**3.0%**	6	영국	254	-5.7%
2	미국	1,724	-1.8%	7	브라질	224	9.2%
3	일본	523	5.3%	8	프랑스	210	4.7%
4	인도	401	10.0%	9	이탈리아	197	7.9%
5	독일	344	2.7%	10	러시아	159	12.0%

자료출처 : 盖世汽车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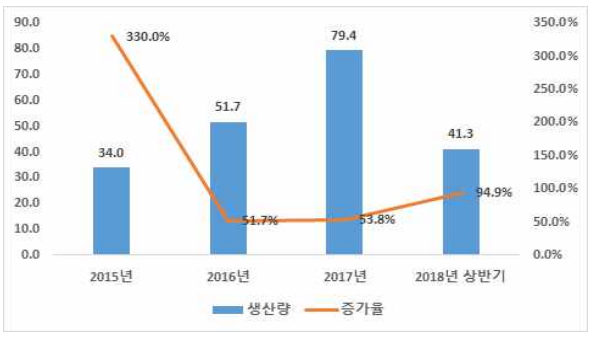
○ 2017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은 각각 79.4만대, 77.7만대로 전년 대비 각각 53.8%, 53.3% 대폭 증가

○ 2018년 상반기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41.3만대, 41.2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94.9%, 111.6% 대폭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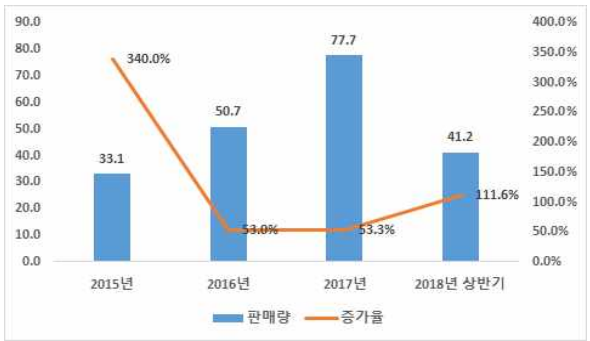
- 지난 3년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5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

< 최근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현황 >

(단위 : 만대, %)



< 생 산 량 >



< 판 매 량 >

자료출처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1)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

□ 신에너지 자동차 8대 키워드

1.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 퇴조

- 2017~2018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금은 2016년 기준에서 20% 하락, 2019~2020년에는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

2. 쌍(雙)포인트 정책

- <승용차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포인트 병행 관리방법>을 발표에 의해 연 생산량 혹은 수입량이 3만대에 달하는 승용차 기업은 연료차 연간 생산량 혹은 수입량의 비중에 따라 일정량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해야 함 (2019년 생산량의 10%, 2020년 생산량의 12%)

3. 신규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

- 현재 중국 자동차산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신규 자동차 기업은 60여개에 달함
- 이중 蔚来, 云度, 小鹏, 威马, 领跑, 爱驰亿维 등 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을 2017년 하반기부터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시장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음

4. 해외브랜드와 합자

- 2017년 6월 독일 폭스바겐과 중국의 江淮(JAC) 기업의 합자기업 설립을 시작으로, 北汽(BAIC)와 Daimler AG, 众泰(ZOTYE)와 포드(Ford), 东风(Dengfeng)과 르노-닛산 등 기업도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추진키로 함

5. 외자출자 비중 철폐

-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자동차 등 제조업의 외자 출자 비중 제한을 폐지하고 또한 자동차 수입관세를 더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2017. 4월, 보아오포럼)

6. 연료차 판매 금지

- 2017년 9월 공업정보화부 신궈빈(辛国斌) 부부장은 네덜란드, 독일, 인도, 프랑스, 노르웨이의 예처럼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연료차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
  - BYD(比亚迪)는 2030년에는 중국 내 연료차 판매를 완전히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 북경자동차(北汽, BAIC)는 2020년 북경, 2025년 전국에서 연료차의 판매를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

7.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자격(資格)

- 2017년 7월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자격'을 획득하고, 발전 개혁 위원회, 공업 정보화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공장 설립 및 순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며, 또한 공업정보화부의 <도로 기동차량 생산기업 및 상품 진입허가>를 획득해야만 판매 가능

8. 투자/금융

- 최근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특히 리튬전지, 신소재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금융도 증가하고 있음

□ 전 망

○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보조금 지원 감소세에도 불구 생산량 및 판매량은 급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재정 보조와 신규 번호판 발급 우대, 도로 주행규제 예외 등의 인센티브 조치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세계 최고를 기록

- 2018년 1-5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28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140% 증가했으며, 5월 판매량은 9.2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140% (동시기 연료차 증가율 0.5%)증가

○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급성장하면서 충전설비 수요도 급증했지만, 실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국 공업정보화부 苗부장은 2020년 기준 신에너지 자동차의 200만대 판매량, 500만대 보유량 목표치에 달하기 위해서는 충전설비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2018.1월. 중국전동자동차 百人會 포럼)

▣ 주요 질의답변

○ 전라북도에는 완성차 공장과 함께 많은 부품 협력업체가 있어 향후 동풍자동차가 한국에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라북도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 전라북도에 품질 좋은 자동차 부품회사가 있어 기회가 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음.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함

☞ 또한 첨단기술과 부품 제공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생산할 의향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한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활용할 생각임

○ 동풍자동차에서 현재 자동차 부품관련 협력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있는지?

☞ 현재 동풍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해 LG와 배터리 관련 협력 관계에 있음

○ 동풍자동차의 연간 생산차량과 한국 수출 계획은?

☞ 군용 납품차량을 포함해 연간 400만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한국 수출은 19년 3월로 예정하고 있음

○ 한국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 한국 자동차시장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협력할 의향이 있음

☞ 특히 전라북도에 상용차 주행시험장이 구축되고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 또한 잘 발달해 있어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동풍자동차는 이미 전기 상용차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데, 수소자동차 관련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수소자동차는 연구단계에 있으며,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한국 내 차량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입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상황은?

☞ 중국 역시 좋은 기술력을 가진 해외 자동차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 중국 현지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음

☞ 좋은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를 생산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 시 가격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늘 염두해 두고 있음

○ 동풍에서 군용차량을 비롯해 상용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전북 김제에는 특장차 전문단지가 있고, 자기인증지원센터 등 특장차 산업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은?

☞ 간담회 자리는 매우 기초적인 자리로, 향후 전라북도를 방문할 때에는 특장차 단지 등을 둘러보고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함

○ 중국 자동차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앞으로 중국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에 이르는 새로운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많은 부품회사와 함께 완성차 업체도 있어 향후 전북 방문 시 소개하고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

☞ 19년 초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시 사 점

○ 최근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과의 합자, 합작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음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다만, 보조금이 2020년까지 지급되며 단계적으로 삭감되고 있어 시장경쟁을 가열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이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가격이며, 그 다음은 배터리 충전속도와 지속능력임

- 아울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보다는 순수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 현황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계획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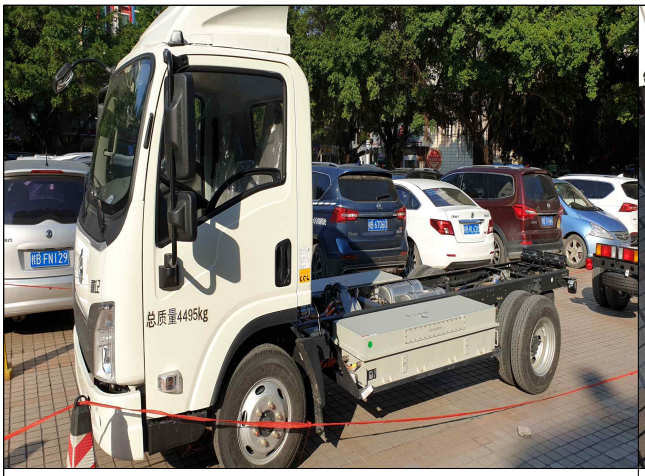
○ 이번 동풍유주자동차 방문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시장,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와의 협력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라북도는 현재 군산 GM공장 폐쇄로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련 자동차 부품 생산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음

- 이와 함께, 탄소산업 분야에 강점이 있어 이를 자동차부품에 활용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됨

○ 2019년 동풍자동차 관계자들의 전북도 방문 시 전라북도의 자동차산업 관련 강점을 적극 부각해 협력관계 구축 및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 방문기관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전기 상용차 전시</td><td>전기 상용차 전시</td></tr>
<tr><td></td><td></td></tr>
<tr><td>전시차량 시승</td><td>관계자 간담</td></tr>
<tr><td></td><td></td></tr>
<tr><td>기념품 전달</td><td>기념촬영</td></tr>
</table>

④ 계림대우객차유한공사(桂林大宇客車有限公司)

▣ 방문목적

○ 상용차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에 진출해 버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자동차 기업의 현지 공장을 방문해 버스 등 상용차 시장 현황, 기업활동 애로사항, 중국 상용차시장 조사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2. 19.(수) 14:00

○ 면 담 자 : 총경리(CEO) 임사연 등 5명

○ 주　　소 : 广西壯族自治區 桂林市 象山區 淨瓶路 10號
(10 Jingping Rd, Xiangshan Qu, Guilin Shi, Guangxi)

○ 홈페이지 : http://www.gldaewoo.com

○ 연 락 처 : 0773-361-8542

○ 주요내용

- 중국 자동차시장 동향 등 자료 수집
- 현지 기업활동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도내 관련 기업과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 방문기관 주요 내용

【 자일대우상용차 현황 】

○ 기업 연혁

- 1955년 2월 : 신진공업사 설립
- 1963년 : 대형버스 양산 및 최초 국산 승용차 '신성호' 제작
- 1972년 : GM과 합작으로 'GM KOREA'로 상호 변경
- 1976년 : 새한자동차로 상호 변경
- 1983년 : 대우자동차로 상호 변경
- 2002년 8월 30일 : 버스에 특화한 대우버스(주) 출범
- 2003년 4월 : 영안모자에 매각
- 2005년 : 코스타리카, 베트남, 중국에 현지 법인 설립
- 2007년 1월 :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설립
- 2008년 10월 : 본사를 부산에서 부천으로 이전
- 2008년 10월 : 파키스탄 현지 법인 설립
- 2013년 8월 : 대우버스(주)에서 자일대우버스(주)로 사명 변경

○ 1955년 부산에서 미군 정비창을 불하받아 세운 신진공업이 시초이며, 1963년 국내 최초의 25인승 소형버스를 제작, 판매

○ 1965년에 부도가 난 새나라자동차의 부평공장을 인수했으며, 1972년에 미국의 GM과 공동 출자해 종합자동차 제너럴모터스코리아자동차(GMK, 지엠코리아)를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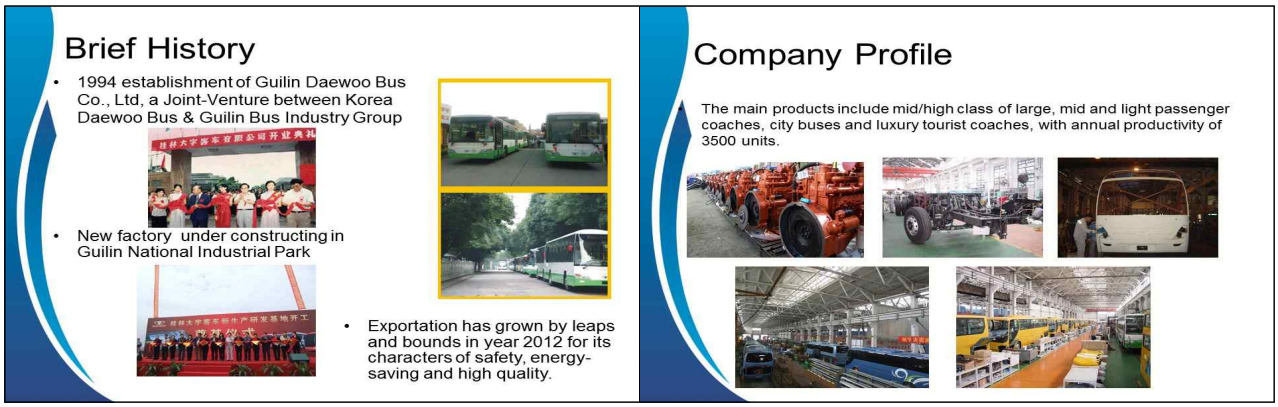
○ 1990년대까지 현대, 기아, 쌍용과 함께 국내 4대 자동차 메이커였으며, 특히 냉전 종식 후 동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 공장들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

○ 1999년 대우그룹의 해체 후 2002년 승용차 부문은 GM이 인수해서 GM대우가, 트럭은 인도의 타타그룹이 인수해서 타타대우상용차, 버스는 영안모자에서 인수해서 자일대우버스로 변경

【 계림대우객차유한공사 현황 】

○ 1994년 계림객차공업그룹과 한국대우객차주식회사가 공동출자하여 계림대우객차유한공사 설립

○ '구진무실, 개척헌신'을 기반으로 중국 고속도로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24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현재는 자산 6.5억위안의 대형 완성차(객차) 제조업체로 발전



○ 공장 주요 현황

- 연 면 적 : 13,600㎡
- 생산능력 : 2,500대/년
- 종업원수 : 910명
- 생산모델 : GDW6129HC, GDW6115K



○ 주요 생산 모델



- 관광버스(내수) : GL6128HKE, GL6127HKE, GL6122HKE, GL6125HKE, GDW6117HKE, GDW6900/6840HKE
- 관광버스(수출) : GL6128HKE, GL6127HKE, GL6122HKE, GL6125HKE, GDW6117HKE, GDW6900HKE, GDW6840HKE
- 도시버스(수출) : GDW6126HG, GDW6106HG, GDW6110HG, GDW6902HG, GDW6901HG, GDW6832HG
- 신에너지버스 : GL6810HEV

○ 주요 시장 현황

- 해외시장 : 아시아(베트남, 태국, 미얀만, 필리핀, 몽고, 카자흐스탄 등), 아프리카(앙골라, 가나, 세네갈 등), 남미(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멕시코 등)
- 국내(중국) 시장 : 내수 판매의 40% 점유

▣ 주요 질의답변

○ 현재 계림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량 현황은?

☞ 완성차 1,50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기버스 또한 100여대 생산하고 있음

☞ 특히, 전기버스는 시내버스 충전소가 종점에 마련되어 있어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계림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버스의 부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 2004년까지는 한국 공장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버스를 생산하였으나, 2005년 이후 중국 내 협력사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고 있음

☞ 현재는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해당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해 생산하고 있음

○ 전북은 탄소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탄소 소재를 활용한 버스 생산계획은 있는지?

☞ 현재 대우버스 울산공장에서 탄소소재를 활용한 버스 생산기술을 검토하고 있음.

☞ 중국 현지에서는 탄소소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차 생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군산 GM공장(승용차 생산) 가동중단 이후 기존 설비 활용방안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검토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향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 중국은 현재 전기자동차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 2021년부터는 수소자동차에 지원할 계획임. 이는 중국의 수소자동차 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로 읽히고 있음

☞ 중국에서는 현재 전기자동차 구입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금을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면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계림대우객차유한공사의 지분율 현황과 경영 관계는?

☞ 한국의 자일대우버스가 50%를 투자하고 있으며, 계림산업그룹과 계림시 정부가 50%를 차지

☞ 다만, 1994년 공장 설립 당시 협약에 따라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한국의 자일대우버스가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 총경리(CEO) 이하 관리자는 한국에서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음

▣ 시 사 점

○ 계림대우객차유한회사는 중국과의 국교수립 초기인 1994년 설립된 회사로, 당시 협약에 따라 한국 자일대우상용차에서 관리자들이 파견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전략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때는 중국 버스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었음

○ 현대자동차 등과 달리 아직까지도 100% 수작업으로 버스를 제작하고 있어 버스 납품기한이 경쟁사에 비해 훨씬 긴 단점이 있으나, 중국 현지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회하고 있음

- 또한, 고객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SKD(Semicompletely Knock Down, 부분조립생산) 방식으로 연간 1,500대 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품질만족도가 높아 연평균 10~20%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현재는 대대적인 계림법인 투자계획에 따라 자동화 라인업을 갖춘 공장을 조성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아울러, 자동차산업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전기버스 생산에도 적극 나서며, 탄탄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에서의 부활을 모색하고 있음

○ 계림대우에서도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수소자동차를 적극 발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세계 제1위의 자동차 생산, 소비 국가로 급부상한 중국의 자동차 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며,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관련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방문기관 사진

<table>
<tr><td>
</td><td></td></tr>
<tr><td>자일대우상용차 계림공장</td><td>현황 청취 및 간담</td></tr>
<tr><td></td><td></td></tr>
<tr><td>전시차량 설명 청취</td><td>생산 공장 견학</td></tr>
<tr><td>
</td><td>
</td></tr>
<tr><td>생산 공장 견학</td><td>기념촬영</td></tr>
</table>

5 기타 방문지

▣ 서가(西街) 재래시장

○ 계림 양삭현에 위치한 서가재래시장은 양삭의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곳으로 '서쪽 길에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와 함께 '서양인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음

○ 서가재래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며 전통공예품을 함께 팔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사동 거리와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서가재래시장은 시장으로서의 모습과 함께 골목 곳곳에 호스텔과 음식점들이 많아 번화가의 모습 또한 갖춘 두 가지 매력의 시장임



▣ 세외도원(世外桃源)



○ 고대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시인이었던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상 속의 세계가 바로 무릉도원 또는 세외도원이라 부르는데, 계림 양삭현에 세외도원으로 불리는 곳이 있음

○ 일찍이 2000여년전 이곳은 한나라 이래로 오래된 역로(驛道)가 있었던 지역으로 일대의 10여리 주변에는 이곳 주민들이 심어 놓은 복숭아나무가 고르게 서있으며 매년 3월이면 이름 그대로 도화(복숭아꽃)가 만발하여 꽃구름을 만들어 마치 한 폭의 이상향을 담은 세외도원 풍경화를 담은 듯함



V 연수후기

전북의 위기,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강 용 구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구성된 7월, 새롭게 시작한 의회는 의욕 넘치는 의원들의 도정현안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로 바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제11대 의회 첫 연수이기에 의원들과 무엇을 배우고 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깊어졌다.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도내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의원들의 논의가 하나로 모아졌다. 도내 핵심 전략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세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들을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중국을 연수 국가로 선정한 것은 차세대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전기 및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있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급성장하며,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국경절(10월 1일) 주간 등으로 연수 일정이 늦춰졌지만, 의회 일정을 마친 홀가분함과 함께, 가 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한국인이 잘 찾지 않는 류저우(柳州)로 향한다는 설렘으로 연수를 출발했다.

우리의 첫 도착지 구이린(桂林). 구이린의 첫 인상은 따뜻함이었다. 시골과 도시의 풍경을 모두 갖고 있는 구이린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첫 방문지인 서가재래시장은 우리네 전통시장과 비교하기에는 그 규모면에서도 무리가 있을 만큼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서양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 파는 물건들 또한 소수민족들이 만든 조그만 수공예품에서부터 고급 찻잔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길거리 노점에서부터 외국 관광객을 위한 고급 식당까지 먹거리 역시 다양하게 있었다.

구이린에서 류저우로의 이동하며 중국의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중국의 고속열차는 동서남북을 잇는 4종 4횡의 8개 노선을 중심으로 전국 320여개 주요도시를 지나가며, 최고 속도에 따라 G라인(최고속도 350km), D라인(최고속도 300km)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의 KTX와 비교해도 시설이 쾌적하고 조용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짧지만 느낄 수 있었다.

류저우는 구이린에 비하면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진 도시였다. 전주 등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더 컸으며, 다양한 고층건물이 화려하게 자리한 명실공이 광서 지역 제2의 도시라는 것이 실감났다.

류저우에 도착하자마자 연수단이 찾아간 곳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투쟁활동 진열관이었다. 연수를 준비하며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는 전시관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우리조차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류저우 시에서 그 분들의 발자취, 역사를 오롯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에 부끄럽기까지 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진열관은 임시정부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었다.

중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평가받는 동풍자동차의 계열회사인 동풍유주자동차회사에서는 연수단을 위해 전기자동차(상용트럭)를

전시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했다. 이 차량은 현재 중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1회 충전 후 260km를 달릴 수 있고, 충전시간 역시 30분~2시간 정도면 충분했다.

동풍유주자동차의 사장급(총경리) 고위 관계자 대부분이 30대 중반인 점도 매우 흥미로웠다. 이들은 중국이 현재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기술력 등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라북도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다는 점과 탄소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이들은 2019년 3월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밝히고, 전라북도를 방문해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 방안을 비롯한 특장차 산업 등과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지는 구이린의 자일대우상용차 현지법인이었다. 이곳은 중국과의 국교 수립 초기 진출한 우리 기업으로 사장급 이하 관리직 직원은 모두 한국에서 파견을 나온 분들이었다. 넓은 중국에서 이들과 통역 없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이었다. 이곳에서는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수작업 중심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제작을 통해 전 세계 각지로 차제, 모듈 등을 수출하고 있었다. 앞으로 대우상용차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 방향을 토대로 전기버스 생산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현재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2021년 이후 수소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하며, 이에 따라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흐름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 나갈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했다.

연수를 준비하며 살펴본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한마디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중국의 대표 자동차기업과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았다. 우리도의 전통적인 효자산업이었던 자동차, 기계, 부품산업이 침체기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지 이들 생산라인을 다시 돌리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 현재의 어려운 위기 상황만을 탓하거나, 허울뿐인 과거의 영광만을 외쳐서는 안 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시작되었다. 모두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새로운 경쟁의 출발점이다.

짧은 연수기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의 현 상황을 되돌아보는 한편 세계시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중국의 눈부신 변화에서 우리의 내일을 생각하자!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최 영 심

중국으로 해외 연수 장소를 정한 이유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자동차 산업 추진 방향이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뒤지고 있있어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고배우기 위해 중국의 계림과 유주로 연수 장소를 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기자동차 외에 우리가 배워올 게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약간 가지고 출발했다.

하지만 이건 중국에 대한 오래된 선입견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중국 방문을 오랜만에 하는 본 의원의 세상물정 모르는 걱정이었다. 중국은 정말 너무 발전하고 있다.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물론 그런 생각은 뉴스로 발전하는 중국을 보고 접하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 하고 나니 우리나라가 기술의 발달을 위해 좀 더 열심히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자료에 있듯이 중국 계림과 유주에서 너무 깨끗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놀라운 기술력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점을 보면서 다른 선진국, 중진국들이 환경오염과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점을 높게 사고 싶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다. 자국의 환경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토바이처럼 보이는 자전거를 모두 전기를 이용하여 이동하게

하면서도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나라의 대응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우리가 방문한 계림대우객차유한회사는 계림객차공업그룹과 한국대우객차주식회사 공동출자로 1994년에 창립한 회사로 시외버스, 시내버스와 관광버스 및 신에너지 버스를 생각하는 회사로 24년이라는 노력을 거쳐 자산이 6.5억인 대형 완성차 제조업체가 되었다.

이 회사의 경영이념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 '기업의 성공은 사람이 창조한 것이다.'라는 이념으로 '직원이 기업의 재산으로 알고 기업의 운영은 직원의 생활을 보장하고 근심을 해결해야 직원이 기업을 집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기업이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버스는 고객이 돈을 버는 공구이며 대우버스로 돈을 벌어야 대우버스가 다시 고객의 승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념으로 최대의 고객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 한국 대우 선진 설계 이념은 에너지 절약을 상품 설계의 중점으로 하고 있고 우수한 상품은 우수한 AS와 분리 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 회사의 서비스 거리를 100km로 줄어들게 한 것이 또 하나의 고객 우선주의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성 광서 계림, 광동 주해, 강소 상주, 무시의 관광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 수출은 동남아시아 등 중동국가와 앙골라 가나 세네갈 등 11개 국가로 수출하며 콜롬비아, 파라과이, 멕시코, 등 남아메리카로 수출중이다.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전기) 버스 판매 45%를 목표로

하고 있어 환경보호와 전기차 개발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전기 자동차 생산 동향을 듣고 배워서 최근 군산 등 심각한 위기를 맞은 도내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과의 협력방안 모색하고자 동풍자동차를 방문 하였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최근 10년간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국적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프랑스 푸조, 일본의 닛산 도요타, 한국 기아자동차 및 장쑤성 위에다 그룹 등과 합자, 합작,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늘리며 성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자동차 등 외자 출자 비중 제한을 없애고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폭을 올릴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2030년에는 중국 내 연료차 판매를 완전히 중지 할 것 이라고 발표하여 중국 내 연료차 판매종료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듯 하고 이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전기, 수소 자동차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리튬전지, 신소재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노력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유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투쟁활동 전시관을 방문하였다. 월요일에 방문하여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출근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준데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 유주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주에서 항일 망명생활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한국 임시정부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기념장소이다.

2002년 4월에 문화재 부문을 인계하여 보수하고 9월에 개관한 진열관은 한국 임시정부가 유주에서 활동한 다량의 사료 유물이

전시되어 한중 양국 국민의 우의를 증명하는 곳이다. 광서와 전국 문화재 보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유주시대를 위주로 전시한 한국 임시정부의 발전사를 거의 반영하였고 200여점의 그림과 풍부한 자료를 통해 유주에서의 어려웠던 항일 망명 생활을 생생하게 재현 해두었다. 1층에는 임시정부 요일들의 활동모형과 각종 서적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는 임시정부의 수립, 류저우 시기 임시정부 활동, 충칭 시기 임시정부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직원 중에 한국어로 해석을 해주는 직원이 없어 중국에서 한국어가 자유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통역을 거치지 않고 설명을 해 주었으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을 거 같은 아쉬움이 있었다.